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손 은 령[†]
충남대학교

손 진 희
신문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적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통제성), 맥락적 변인(지각된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행동 변인(진로포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준비 행동)을 선정한 후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332명에게 특성불안 질문지, 내외통제성 검사, 진로장벽 검사, 진로포부 척도, 진로결정 효능감 검사, 진로결정 수준 검사, 진로준비 행동 척도 및 배경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성과 학년 외의 변인들 특성불안, 내외통제성, 진로장벽은 상위 25%와 하위 25%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진로행동 변인의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의 개별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이 진로행동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대학생의 진로행동 변인들과 개인적·맥락적 변인 간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상관의 정도나 상관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장벽 변인은 진로결정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과의 상관정도도 상당히 높았다. 둘째, 여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은 남학생들에 비해 낮았으나, 진로준비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진로장벽이었으나, 진로준비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들과 함께 자신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과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학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자들이 조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진로장벽

[†] 교신저자 : 손 은 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충남 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soner@cnu.ac.kr

직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내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진로상담 분야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의 진로선택 및 결정 과정을 설명해주는 여러 새로운 이론들도 진로상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 이론들 중에 최근 들어 진로 상담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다. 이 이론은 Bandura (1986)의 사회 인지 이론을 진로상담 영역에 응용하여 개인·심리적 요인들 외에 사회·환경적 영향들을 포괄하는 진로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진로흥미가 형성되고 발달되는 과정과 진로선택 및 이행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Bandura(1986)는 개인적 속성들(내적, 인지적, 정서적 상태와 물리적 속성들), 외적·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외현 행동이라는 세 축이 양 방향으로 영향을 주면

서 상호 결합된 기제로 작용한다는 3축 호혜성 모델(triadic reciprocal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도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 몇 개의 인지적·개인 변인(예를 들어 자아 효능감, 결과 기대 등)과 함께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개인 외적 또는 맥락적 요인들(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장벽들)의 상호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이론은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에 미치는 인지적·개인적 변인들과 외적·맥락적 요인의 상호 영향을 강조하며, 진로선택에 이르는 복잡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Brown & Lent, 1996). 첫째, 직업적, 학업적 흥미는 주로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능력 측정치가 직업적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낮게 갖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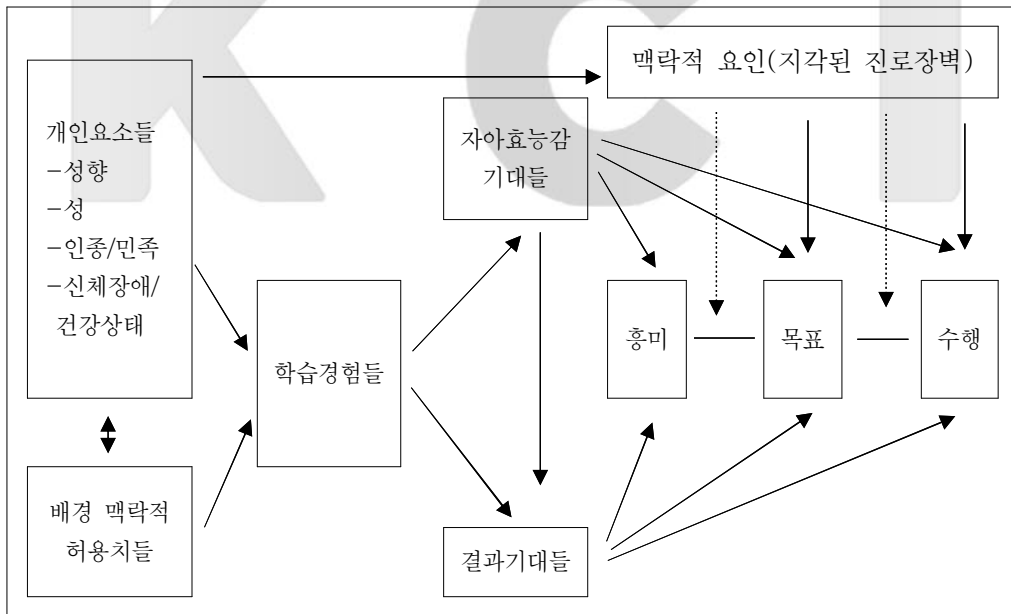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적 영향(Lent, Brown, & Hackett, 1994)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적 흥미가 있더라도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게 될 경우에는 흥미가 직업 선택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수행 성취에 대한 강화에 의해서 발달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수행성취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살펴본 후 새로운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사회 인지론적 진로선택 과정을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개인적 요소들은 맥락적 요인(지각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고, 맥락적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한다. 즉 개인적 요인, 맥락적·환경적 요인과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들이 진로흥미, 진로목표 및 선택행동들의 관계를 매개한다. 따라서 진로상담 과정을 개인·심리적 관점에서만 실행해서는 안된다. 직업적 흥미가 직업선택으로, 그리고 직업선택이 실행으로 전환되는 능력은 맥락적 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타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협조적 지원체계, 사회구조적 차별과 같은 부정적 환경 요인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 즉, 진로장벽의 지각에 따라 직업흥미가 진로목표로 그리고 진로목표가 진로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이와 같이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개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을 이 이론적 틀로 탐색하려는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Lent et al., 2000; 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Chopra, 2001; Lent, Brown, Nota, & Soresi, 2003; Smith, 2001),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에 거론된 한두 변인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론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 졌으며, 측정도구들(예를 들면, 진로장벽, 진로지지원 등)도 최근에야 서서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외에서 관련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미치는 개인·심리적 변인과 맥락적·환경적 변인의 역할을 탐색하려는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a; 이명숙, 2003; 이연미, 2001; 최수옥, 200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되기 보다는 몇 개의 변인들만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가정들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지론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는 개인적·맥락적 변인들을 선정한 후 진로선택 및 수행과정과 각 변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에 비추어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변인으로는 성, 성향 특성불안 및 통제소재), 그리고 학년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개인적 변인이라 칭하였다. 이상 4개의 개인적 변인들은 진로 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된 주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맥락적 변인으로는 지각된 진로장벽을 선정하였다. 지각된 진로장벽은 2001년도에 국내에서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김은영, 2001; 손은령, 2001a)가 개발된 이후 후속 연구

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손은령, 2001b; 이명숙, 2003; 이연미, 2001), 1990년 이후 꾸준히 관련 연구들(Lent et al., 2001; Lent et al., 2003; Lucas & Epperson, 1990; Luzzo & Jenkins, 1996; Luzzo, 1996; Shuttlesworth, 1992; Swanson & Daniels, 1995)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진로선택 및 수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행동 변인에는 진로포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그리고 진로행동 변인을 선정하였다. 매개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 변인은 아직 측정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연구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이유로 흥미 변인도 연구에 투입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으로는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공식적인 학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진로선택 및 준비과정이 대학교 단계의 발달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 및 준비에 대한 압박감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김봉환, 김병석, 정절영, 2000). 하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은 개인 차원에서의 취업 준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대학 당국 및 상담 기관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이 요구되며, 학문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준비과정에 관여되는 여러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 및 유관성을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연구변인들과 연구대상을 선정한 후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요인이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산발적으

로 되어 왔던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토대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진로상담과 진로의 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적인 정보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행동(진로포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준비 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 통제성에 따라 진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맥락적 변인(지각된 진로장벽)에 따라 진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 중 어떤 변인인가? 그리고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들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한 C 국립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332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40명(42.2%)과 여자 192명(57.8%)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03명(31.0%), 2학년 73명(22.0%), 3학년 68명(20.5%), 그리고 4학년이 88명(26.5%)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전공별로도 고른 표집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평균 연령은 20.95세($SD=2.25$)였다.

연구도구

특성불안 질문지

Spielberg, Gorsuch 와 Lu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우리말로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불안 척도는 피험자의 '지금-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성불안 척도는 '일반적으로 느끼는'바를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성격적으로 결단성을 요구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며, 선행 연구에서 특성불안이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을 더 잘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특성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는 4점으로 채점한다. 채점방법은 20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체크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는데 일곱 개의 도치 문항(1, 6, 7, 10, 13, 16, 19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한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0~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택이 한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시킨 연구에서 특성불안 척도의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의 Cronbach α 는 .83이었다.

내외통제성

Rotter(1966)가 개발한 내외통제성 검사(Rott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차재호(1973)가 번안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내외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응답자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의 문항에 1점을 주고 외적통제성의 문항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김현옥(1989)이 보고한 Cronbach α 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68이었다.

진로장벽

김은영(2001)이 남녀 대학생용으로 개발한 45문항의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 장애검사(Korean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45점~180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김은영(2001)은 9개의 요인 별로 Cronbach α 를 계산하였는데 그 범위는 .71~.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α 는 .91이었다.

진로포부 척도

O'Brien(1992)이 개발한 The Career Aspiration Scale을 우리 실정에 맞게 최수옥(2002)이 번안한 10문항의 진로포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진로 분야에서의 계획과 목표를 측정하는데,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까지이며 4개의 역채점 문항(3, 4, 7, 10번 문항)이 포함

되어 있다. 최수옥(2002)이 보고한 *Cronbach* α 는 .74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78이었다.

진로결정 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효능감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참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6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25~150점까지이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보고한 *Cronbach* α 는 .92이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도 .92였다.

진로준비 행동

김봉환(1997)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정도를 재기 위해 개발한 진로준비 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 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는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이 있다. 검사는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봉환(1997)이 보고한 *Cronbach* α 는 .84였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7이었다.

진로결정 수준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수준 검사는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두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항 3-18을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향자(1992)가 보고한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0이었다.

연구절차

교양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 실시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허락을 얻은 이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포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검사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이었으며, 모든 검사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개인적 변인, 맥락적 변인과 진로행동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각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성, 학년, 특성불안, 내외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라는 맥락적 변인에 따라 진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 때 특성불안 검사 점수의 상위 25%를 높은 불안 집단으로 하위 25%는 낮은 불안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내외통제성 검사의 상위 25%를 내적통제 집단으로 하위 25%를 외적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진로장벽 검사 점수도 상위 25%를 높은 장벽지각 집단으로 하위 25%는 낮은 장벽지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집단의 진로행동 변인 측정치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변인, 맥락적 변인이 진로

행동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학년, 전공, 특성불안, 내외통제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진로행동 변인 측정치들을 기준 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과 진로행동 변인들 간의 상관

진로행동 변인들과 개인적·맥락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개인적 변인 중 성별은 진로결정 수준($r=-.13, p<.05$) 및 진로준비 행동($r=.22,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년은 모든 진로행동 변인들 즉, 진로포부($r=.14, p<.05$), 진로결정 효능감($r=.21, p<.001$),

표 1.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과 진로행동 변인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성	1.00	.12*	.27***	.05	.28***	-.03	-.05	-.13*	.22***
2. 학년		1.00	-.06	-.13*	-.01	.14*	.21***	.18**	.41***
3. 불안			1.00	.29***	.61***	-.19***	-.37***	-.33***	-.05
4. 내외 통제성				1.00	.34***	-.11**	-.30***	-.27***	.16**
5. 진로장벽					1.00	-.23***	-.47***	-.63***	-.12*
6. 진로포부						1.00	.24***	.13*	.16**
7. 진로결정 효능감							1.00	-.57***	.45***
8. 진로결정 수준								1.00	.28***
9. 진로준비 행동									1.00

* $p < .05$ ** $p < .01$ *** $p < .001$

진로결정 수준($r=.18, p<.01$) 및 진로준비 행동($r=.41,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불안은 진로포부($r=-.19, p<.001$), 진로결정 효능감($r=-.37, p<.001$), 진로결정 수준($r=-.33, p<.001$)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으며, 내외통제성은 모든 진로행동 변인들 즉, 진로포부($r=-.11, p<.01$), 진로결정 효능감($r=-.30, p<.001$), 진로결정 수준($r=-.27, p<.001$) 및 진로준비 행동($r=.16, p<.01$)과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맥락적 변인(진로장벽)과 모든 진로행동 변인들 즉, 진로포부($r=-.23, p<.001$), 진로결정 효능감($r=-.47, p<.001$), 진로결정 수준($r=-.63, p<.001$) 및 진로준비 행동들($r=-.12, p<.05$)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적 변인에 따른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개인적 변인에 따라 진로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별로 진로행동 변

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를 보면 진로결정 수준($p < .05$)과 진로준비 행동($p < .001$)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남자 대학생 집단($M=2.77, SD=.50$)이 여자 대학생 집단($M=2.63, SD=.54$)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 집단($M=2.27, SD=.50$)이 남자 대학생 집단($M=2.04, SD=.53$)보다 높았다.

학년별로 진로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진로포부($p<.05$), 진로결정 효능감($p<.001$), 진로결정 수준($p<.01$)과 진로준비 행동($p<.05$)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후속적으로 Scheffé검증한 결과 4학년($M=4.30, SD=.64$)이 1학년($M=3.85, SD=.74$)에 비해 진로결정 효능감 수준이 높았으며, 진로결정 수준도 4학년이 $M=2.69, SD=.62$ 이 1학년($M=2.58, SD=.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 행동의 경우 4학년($M=2.47, SD=.49$)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3학년($M=2.26, SD=.47$)과 2학년($M=2.13,$

표 2. 성별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진로행동 변인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포부	남자 대학생	140	2.92	.46	.30
	여자 대학생	192	2.89	.43	
진로결정 효능감	남자 대학생	142	4.10	.72	.93
	여자 대학생	192	4.02	.71	
진로결정 수준	남자 대학생	140	2.77	.50	5.86 *
	여자 대학생	192	2.63	.54	
진로준비 행동	남자 대학생	140	2.04	.53	16.42 ***
	여자 대학생	192	2.27	.5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학년별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진로행동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é비교
진로포부	1학년	103	2.79	.45	3.027*	
	2학년	73	2.93	.41		
	3학년	68	2.97	.45		
	4학년	88	2.94	.46		
진로결정 효능감	1학년	103	3.85	.74	.688***	4학년 > 1학년
	2학년	73	4.10	.72		
	3학년	68	3.98	.66		
	4학년	88	4.30	.64		
진로결정 수준	1학년	103	2.58	.47	4.49**	4학년 > 1학년
	2학년	73	2.66	.50		
	3학년	68	2.66	.47		
	4학년	88	2.69	.62		
진로준비 행동	1학년	103	1.91	.44	3.01***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2학년	73	2.13	.52		
	3학년	68	2.26	.47		
	4학년	88	2.47	.4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특성불안에 따른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진로행동 변인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포부	저 불안집단	74	3.10	.42	12.10**
	고 불안집단	89	2.87	.40	
진로결정 효능감	저 불안집단	74	4.38	.67	33.87***
	고 불안집단	89	3.74	.72	
진로결정 수준	저 불안집단	74	2.89	.42	36.99***
	고 불안집단	89	2.43	.44	
진로준비 행동	저 불안집단	74	2.19	.56	.01
	고 불안집단	89	2.18	.48	

* $p < .05$ ** $p < .01$ *** $p < .001$

SD=.52)의 순이었으며 1학년(M=1.91, SD=.44)의 진로준비 행동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성불안에 따라 진로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진로포부($p < .01$), 진로결정 효능감($p < .001$), 진로결정 수준($p < .001$)은 특성불안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불안 집단(M=3.10, SD=.42)은 고불안 집단(M=2.87, SD=.40)보다 진로포부가 높았으며, 진로결정 효능감도 저불안 집단(M=4.38, SD=.67)이 고불안 집단(M=3.74, SD=.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저불안 집단(M=2.89, SD=.53)보다 고불안 집단(M=2.43, SD=.44)의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내외통제성에 따라 진로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진로결정 효능감($p < .001$), 진로결정 수준($p < .001$), 진로준비 행동($p < .05$)은 내외통제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내적통제 집단(M=4.23, SD=.68)에 비해 외적통제 집단(M=3.81, SD=.69)의 진로결정 효능감이 낮았으며, 진로준비 행동도 내적통제

집단(M=2.22, SD=.55)보다 외적통제 집단(M=2.07, SD=.48)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내적통제 집단(M=2.84, SD=.52)의 진로결정 수준이 외적통제 집단(M=2.53, SD=.50)의 진로결정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맥락적 변인에 따른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맥락적 변인(진로장벽)에 따라 진로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을 보면 진로포부($p < .001$), 진로결정 효능감($p < .001$), 진로결정 수준($p < .001$), 진로준비 행동($p < .05$)으로 구분된 진로행동 변인 모두 진로장벽의 지각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장벽 지각 집단(M=3.05, SD=.45)은 고장벽 지각 집단(M=2.79, SD=.40)에 비해 진로포부도 높았으며, 진로결정 효능감도 저장벽 지각 집단(M=4.57, SD=.59)이 고장벽 지각 집단(M=3.65, SD=.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 행동의 경우에도 저장벽 지각 집

표 5. 내외통제성에 따른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진로행동 변인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포부	내적통제 집단	92	2.97	.43	3.45
	외적통제 집단	111	2.90	.45	
진로결정 효능감	내적통제 집단	92	4.23	.68	19.81 ***
	외적통제 집단	111	3.81	.69	
진로결정 수준	내적통제 집단	92	2.84	.52	19.61 ***
	외적통제 집단	111	2.53	.50	
진로준비 행동	내적통제 집단	92	2.22	.55	4.00 *
	외적통제 집단	111	2.07	.4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맥락적 변인에 따른 진로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분석

진로행동 변인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포부	저 장벽 지각집단	78	3.05	.45	14.57 ***
	고 장벽 지각집단	85	2.79	.40	
진로결정 효능감	저 장벽 지각집단	78	4.57	.59	82.62 ***
	고 장벽 지각집단	85	3.65	.70	
진로결정 수준	저 장벽 지각집단	78	3.22	.47	183.05 ***
	고 장벽 지각집단	85	2.33	.38	
진로준비 행동	저 장벽 지각집단	78	2.34	.59	5.86 *
	고 장벽 지각집단	85	2.13	.50	

* $p < .05$ ** $p < .01$ *** $p < .001$

단($M=2.34$, $SD=.59$)이 고장벽 지각 집단($M=2.13$, $SD=.50$)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진로 결정 수준에서도 저장벽 지각 집단($M=3.22$, $SD=.47$)이 고장벽 지각 집단($M=2.33$, $SD=.38$)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행동 변인들의 주된 예언 변인

대학생의 진로행동 변인들이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진로행동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학년, 불안, 내외통제성,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은 명명 변인이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고,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을 구분하여 다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대학생의 진로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서와 설명량은 조금씩 달랐다. 먼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장벽이 $5.4\%(F=18.947, p<.001)$

를 설명해주었으며, 이어서 학년이 $1.8\%(F=12.75, p<.001)$ 를 추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두 변인의 총 설명량은 7.2% 였다. 하지만 성별로 구분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진로장벽만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효능감의 경우 진로장벽, 학년, 내외통제성이 변량의 28.0% 를 설명하였는데 이중 진로장벽이 $22.5\%(F=95.54, p<.001)$ 를 설명하고, 학년이 $4.2\%(F=60.04, p<.001)$ 을 그리고 내외통제성이 $1.3\%(F=42.58, p<.001)$ 를 추가해서 설명해주었다.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내외통제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수준의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40.0\%(F=183.05, p<.001)$, 학년이 $3.0\%(F=124.14, p<.001)$ 를 추가해서 설명해주었으며 이들 변인이 전체의 43.0% 를 설명하였다. 성별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진로준비 행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 학년이 전체 변량의 $16.5\%(F=65.40, p<.001)$ 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진로장벽이 $1.5\%(F=35.61, p<.001)$ 를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

표 7. 진로행동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진로행동 변인들	대상	개인적변인과 맥락적 변인	R	R ²	B	F
진로포부	전체	진로장벽	.233	.054	-.233	18.95 ^{***}
		학년	.268	.072	.133	12.75 ^{***}
	남자대학생	진로장벽	.259	.067	-.259	0.960 ^{**}
	여자대학생	진로장벽	.218	.047	-.218	9.441 ^{**}
진로결정 효능감	전체	진로장벽	.474	.225	-.474	95.54 ^{***}
		학년	.517	.267	.207	60.04 ^{***}
	남자대학생	내외통제성	.529	.280	-.123	42.58 ^{***}
		진로장벽	.403	.163	-.403	26.794 ^{***}
		학년	.477	.228	.356	20.212 ^{***}
		여자대학생	진로장벽	.532	.283	-.532
진로결정 수준	전체	진로장벽	.632	.400	-.632	219.94 ^{***}
		학년	.656	.430	.174	124.14 ^{***}
	남자대학생	진로장벽	.570	.324	-.570	66.247 ^{***}
		학년	.616	.380	.236	41.978 ^{***}
	여자대학생	진로장벽	.661	.434	-.661	147.302 ^{***}
		학년	.673	.447	.126	78.093 ^{***}
진로준비 행동	전체	학년	.407	.165	.407	65.40 ^{***}
		진로장벽	.422	.180	-.112	35.61 ^{***}
	남자대학생	학년	.338	.115	.338	17.855 ^{***}
		학년	.436	.190	.436	44.571 ^{***}
	여자대학생	진로장벽	.507	.257	-.259	32.687 ^{***}
		내외통제성	.533	.284	-.182	24.871 ^{***}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다. 이 세변인은 진로준비행동 전체 변량의 1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집단의 경우와 남녀 대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진로준비 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11.5%, $F=17.855$, $p<.001$) 뿐이었으나,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년(19.0%, $F=44.571$, $p<.001$)의 설명량이 가장 높

고, 이어서 진로장벽(6.7%, $F=32.687$, $p<.001$), 내외통계성 (2.7%, $F=24.871$, $p<.001$)의 순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2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진로연구에서 산발적으로 되어 왔던 관련 변인의 유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들을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여러 가정 및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행동 변인들과 개인적·맥락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상관의 정도나 상관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맥락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Luzzo와 Jenkins(1996), Smith(2001), Lent 등(2001), 그리고 Lent 등(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우선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변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장벽 변인은 진로결정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r=-.63$, $p<.001$)를 보였으며, 불안과의 상관정도($r=.61$, $p<.001$)도 상당히 높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김은영, 2001; 손은령, 2002; Swanson & Daniels, 1995)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불안 정도가 외부의 직업 환경 및 진로 현실

을 왜곡되게 지각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의 실재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지적 검열과정을 통해 형상화된 외부 환경이 진로결정 과정에는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1; Lent et al., 2003)는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주장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로 진로 행동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와 진로결정 효능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은 남학생들에 비해 낮으나 진로준비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의 경우 진로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방향성 없는 진로준비 행동을 높게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최근 이제경의 연구(2004)를 보면 여대생의 예비적 취업 준비행동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행동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학생들이 보다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작정 진로준비를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을 조기에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취업 준비 및 취업 탐색 행동과 같은 진로준비 행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2차원적으로 유형화를 통해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는 김봉환(1997)의 주장을 대학 취업 지원센터 및 진로 상담자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에 비

해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가정처럼 성별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맥락적 요인(지각된 진로장벽)을 매개로 하여 여러 진로행동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준비 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 내외 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이제경, 2004)와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야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저학년 단계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자기 탐색 및 진로결정, 진로준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체 대학생의 진로포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진로장벽이었으나 진로준비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인지와 행동으로 구분해보면 진로결정 수준은 인지적 영역의 변인이다. 따라서 외적 직업세계에 대한 지각 및 해석과 같은 인지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진로장벽 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진로준비 행동은 행동 및 실행차원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구직활동, 직업 탐색 또는 면접 훈련 등과 같은 실제적인 노력과 연습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장벽 변인보다는 학년의 발달적 변인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준비

행동 변인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간에 설명 변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남자 대학생들은 진로준비 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인이 학년뿐이었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학년, 진로장벽, 내외통제성이라는 세 개의 변인이 대두되었다. 이는 여자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이 보다 복잡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 하에 있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여자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가 치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가정(Lent et al., 1996) 즉, 직업적 흥미가 직업선택으로, 직업선택이 진로실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진로장벽의 지각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들에서도(Lent et al., 2000; Smith, 2001)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들은 진로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지각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현실성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내담자의 발달 단계 및 심리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보면 진로장벽 외에 대학생의 학년, 내외통제성, 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도 진로행동들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변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대처 능력과 비합리적 신념, 정서 등에 대한 개별적 고려도 평가과정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진로상담자들은 평가의 목적이 개인의 진로범위 및 능력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있음을 물론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가 진로상담의 실제 및 상담 개입 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불안 정도를 살펴야 하며,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영역과 정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불안은 외부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어렵게 만들며,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의 첫 회기부터 기존에 개발된 특성불안검사(김정택, 1978)나 진로장벽 검사지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를 상담의 주제로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담자의 진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진로결정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가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 취업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들은 주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 연습과 같이 행동차원에서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과정에서 내담자가 외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즉, 내담자의 진로장벽 지각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차원의 지원과 함께 진로와 관련된 인지 및 신념, 태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이 수반되어야만 행동차원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인지 이론에서 보면 개인은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나, 신념, 또는 자기상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동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선행인자인 사고체계나, 신념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진로사고검사(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나, 진로신념검사(이경희, 2001) 등을 활용하여 상담시간에 내담자와 함께 각각의 문항들을 짚어가면서 내담자의 진로 관련 인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년이 진로준비 행동을 설명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1학년 시기에는 자기 탐색 및 진로 비전 확립, 2, 3학년 시기에는 구체적인 진로 개발 및 직업탐색과 취업 전략 구안, 4학년 시기에는 취업 준비 및 리더십 강화훈련과 같은 구조화된 틀을 마련한 후 집단상담, 특강, 워크숍, 심리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을 조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상담 연구에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 및 진로행동 변인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행동에 미치는 개인적·맥락적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 과정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인이 지각된 진로장벽임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개인적·심리적 변인에 편향되었던 연구자들의 관심을 외적·환경적 영향에도 돌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토대로 하여 연구변인을 선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론 지향적인 연구의 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고, 후속적으로 메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D 지역에 소재한 한 개 대학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공간적 연구대상의 확대와 함께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설정된 여러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방법을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각 변인간의 이론적 관계가 명확해지고, 검사도구들이 개발된다면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김계현 편저 (2001). 상담심리학연구 II -집단·진로·학업·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은령 (2001a).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은령 (2001b).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 연구, 5(3), 623-635.
- 이경희 (2001).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의 번안과 문항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0), 127-136.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 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 (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재호 (1973). 내-외통계척도 작성,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19). 263-271.
- 최수욱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Lucas, M. S., & Eppweson, D. L.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r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inforc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2-388.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1-8.
- Mahrer, A. R. (1988). Discovery-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Rational, aims, and methods, *American Psychologist*, 43, 194-702.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 (up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mith, S. M. (2001).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student. *The Delta Pi Epsilon Journal*, 43(4), 200-214.
- Storey, W. D. (1979). A guide for career development inquiry. In R. Herr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H. L., & Daniels, K. K. (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Tokar, D. A.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원 고 접 수 일 : 2005. 2.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8

게 재 결 정 일 : 2005. 5. 6

K C I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un-Young S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in-Hee Son
Sunmo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sex, grade level, anxiety,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ontextual variables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behavior variables (career aspir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ch are rooted in social-cognitive career theories and their impact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o gather this information, a total of 332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administered Trait Anxiety Inventory, Locus of Control Scale, The Career Aspiration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reer Decision level Scale, Career Preparation Questionnaire, and The Demographical Survey.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each variables. The variables except sex and grade level (trait anxiety,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areer barriers) were divided into higher 25% and lower 25% group. And the ANOVA was conducted for comparing career behavior variables and the trait anxiety,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areer barrier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impacts of the individual variables and contextual variables on the career behavior variables. First, Study findings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er behavior variables and the individual/contextual variables. Special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eer barriers variable and career decision making was high and it also correlated highly with anxiety. Second, the study revealed that the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was higher than male college students', but the female college students did mo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an male college students.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career barriers accounted for the greatest variance in career aspir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grade level was found to be the greatest predictor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s the counselors must evaluate the college students' career cognitions and personal traits with proper instruments and help for college students to develop their career plans and action based on the realistic understanding of job environment and self-analysis about their career developmental levels and readiness.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mean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barriers.